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A Study on the Proposal for Deposit Linkage Plan Based on the Survey of Online Material Identification System

노 영 희 (Younghee Noh)** 장 인 호 (Inho Chang)***
정 영 미 (Youngmi Jung)**** 손 애 경 (Aekyoung Son)*****
이 경 선 (Kyungsun Lee)***** 차 현 주 (Hyunju Cha)*****

초 록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료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의 현황, 관련 법·제도, 온라인 자료의 유형 및 수집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수집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자료 수집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는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반 조성부터 시작하여 확산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숙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

ABSTRACT

The seventh year of implementing online material deposit demands a systematic collecti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strategic plan for online material collection. In this study, we aimed to propose an online material collection strategy and a long-term roadmap for preserving online resources as national intellectual and cultural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To achieve this, we analyzed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ibrari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types and collection status of online materials.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d practical collection standards and methods. Ultimately, a long-term roadmap and implementation plan were suggested.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online material collection established a phased, concrete implementation strategy. This includes the foundation-building phase of online material collection, followed by the expansion phase, and finally reaching the maturity phase.

키워드: 온라인 자료, 중장기 발전방안, 수집전략,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법·제도 개선 방안, 관련 법령 개정, 중장기 로드맵, 온라인 장서개발 정책,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본지침

Online resources,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collection strategy, Collection of new media-platform-based data, Online data identification system,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amendments to relevant laws, Mid- to long-term road map, Online book development policy, Basic Guidelines for Online Data Collection

* 이 연구는 2023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oinchang@gmail.com) (교신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mjung@deu.ac.kr) (공동저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교수(impdeneb@global.ac.kr) (공동저자)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교수(nzsunsetview@gmail.com) (공동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cha1448@skku.edu)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4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24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4년 6월 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2) : 5-23, 20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4.35.2.005>

※ Copyright © 2024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인쇄 기반 출판과 달리 온라인 출판은 매우 역동적이고 대체로 증대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출판과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는 급변하는 매체를 정확하게 수집 및 보관하는 기관에 특별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는 일시적이며 종종 급격히 사라질 디지털 콘텐츠로 간주되고 있으며, 새로운 웹사이트가 끊임없이 형성되고, URL이 변경되고, 콘텐츠가 변경되고, 웹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웹사이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시사, 조직, 대중의 반응, 정부 정보, 문화 및 학술정보를 문서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인쇄자료가 점점 더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

온라인 출판은 다양한 수집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캡처하는 자동화가 필요하며, 이 기술에 대한 의존은 포괄적인 컬렉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온라인 출판의 복잡성은 수집할 수 있는 항목에 상당한 기술적 제한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가 수집될 수 있지만 보관된 컬렉션 내에서 완전하지 않거나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웹사이트 수집은 도서관에 중요한 활동이자 매우 어려운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문헌의 수집 보존과 이용을 위해 1963년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2016년에 온라인 자료의 납본이 반영되어 개정 및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자료가 계속 출현하고 있어 소멸성,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는 적극적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면 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 출판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ISBN 발급 자료의 유형, 실제 출판 유통 여부 등 전자책 출판 현황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 제작 까지도 조사 연구해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온라인 자료는 빨리 생산하는 만큼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중한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방안과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확대 및 적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2. 선행연구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오랫동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발전적으로 많은 연구

자에 의해 다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10년 이내에 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2012a)이 최초로 온라인 개발 정책을 수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보다 발전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2012a)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온라인 자원을 대상으로 수집범위 및 자료유형별·매체별·주제별 수집전략 및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의 수준 및 범위를 정비하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온라인 자료 수집과 아카이빙 및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와 실무적 지침서를 제시했다. 국립중앙도서관(2022)은 또한, 온라인 자료 수집 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를 통해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음원의 4가지 온라인 자료의 수집체계와 수집전략을 각 유형별로 수립하고, 가격조사를 통한 정가 및 보상가격의 산정방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21)는 영미권과 유럽권, 아시아권 등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조사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자료 납본 타임라인을 도출하고, 국내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문제점 분석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수집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로 국립중앙도서관(2012b)은 현재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법정 납본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간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후 납본수

집력 강화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하여 납본 규정의 추가 개발 및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유형화 및 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에서 곽승진 외(2013)는 온라인 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지속적 접근을 위해 국내외 납본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고 납본 관계자, 이용자,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납본 범위 및 납본 불이행 시 제재까지 제시하였다. 그 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최재황, 곽승진, 김정택, 2009)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19)도 수행되었다.

온라인 보존 관련 연구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원 보존전략 수립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2018)에 적합한 디지털 보존정책, 디지털 보존 실무 개선방향, 디지털 보존을 위한 조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온라인 연속간행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이치주, 2007),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방안 연구(장보성, 남영준, 2010) 등이 있다.

위 연구들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이용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수집 및 납본시스템의 필요성, 국제적 접근 및 비교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자료의 다양성 인식, 법적 및 제도적 개선 제안, 디지털 보존의

전략 및 실무 개선, 보존 및 서비스 통합 접근 등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전략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납본, 기증, 자체수집 등)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기증, 자체수집 현황 및 추이, 온라인 자료 유형별 정확한 출판 및 발행 정보 통계,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대상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했다.

둘째, 해외 주요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비교 분석했다. 해외 주요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 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제시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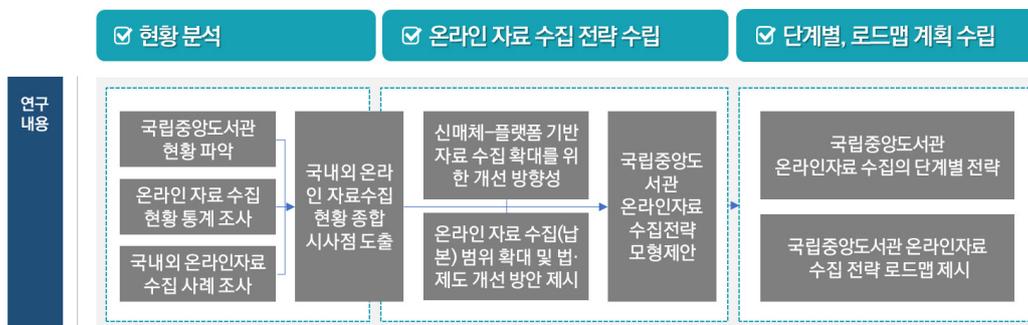
셋째,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 대상 및 범위, 방법 등 구체적 수집 기준 설정,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성 제시, 그리고 우리 도서관내 서비스 적용 방법 및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온라인 자료 수집(납본) 범위 확대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도서번호 외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ECN, UCI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안하였다.

4. 현황분석결과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



〈그림 1〉 연구절차 및 내용

립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온라인 자료 수집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국가도서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했다. 또한, 식별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디지털자료에 부여되는 식별체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전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4.1 국내 온라인 수집 현황 분석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의 대상과 방향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이다. 그리고 그 외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의 자체 수집, 수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가 다양하게 출현함에도 해당 온라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침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자책 출판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통계자료가 부족해 수집 기준을 잡지 못하고 체계적인 수집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SBN 발급자료만을 기준으로 수집하기에는 미리보기, 체험판, 연재 중인 자료 등의 납본 제외 자료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판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수집 기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1.1 온라인 자료 납본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영상, 이미지, 음

성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료의 납본(2016.8)제도, 장서개발지침 등을 통해 디지털 장서(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납본된 온라인 자료는 열람용 1부를 제공받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동시접속은 1명까지 가능(저장, 복사, 인쇄, 화면캡처 등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부 이용자는 공공간행물, 학위논문에 한해 서비스되고 있다. 전자책의 ISBN 납본대상 건 수 비율을 보면 2016년 2.59%에서 매년 상승하여 2021년 24.0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16.51%를 기록하여 전자책의 납본율이 2016~2022년 평균 17.24%에 머물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전자저널의 경우 2022년 48.11%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자책에 비해 납본율이 좋은 편이지만, 2016~2022년 평균 납본율이 26.06%에 머물러 있어 이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음성·음향 자료의 납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2년 자료의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디오북 등록 및 서비스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통계기준이 2022년부터 '건'에서 '종'으로 변경된 영향을 받은 결과로 절대적인 자료 건수가 감소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다. 음성·음향 자료는 납본보다는 자체 수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의 경우 납본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4.1.2 기증에 의한 수집현황

도서관법에 따라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는 납본 이외의 방법인 기증을 통해 전자책, 전자저

널, 음성·음향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저널 이외의 자료는 2020년을 기준으로 기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증 자료의 비율을 보면, 전자저널이 92.3%로 가장 높고, 전자책이 4.2%, 음성·음향이 3.4%로 나타났다.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 납본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의 경우 2017년(3.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으며, 2022년은 0.6%에 그쳤다. 전자저널의 경우 2017년 많은 자료가 기증이 되었고, 2020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음성·음향 자료는 2019년 이후 한 건의 자료도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4.1.3 자체수집에 의한 온라인 자료 확보현황

도서관법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는 납본 이외의 자체 수집을 활용하여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 장애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전자책에 대한 자체 수집은 2017년 7권에서 2018년 2만 여권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전자저널의 자체 수집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음성·음향의 자체 수집은 2017년 수집이 되다가 2018~2019년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부터 매년 자체 수집을 하고 있다. 영상 자료의 경우 매년 자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료의 양이 많지는 않다. 이미지 자료의 자체 수집도 202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0년을 제외하면 자체 수집은 아주 적은 양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자료의 경우 자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해 상황에 따라 수집을 하

지 않은 연도도 발생(2020년 0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4.1.4 납본과 수집률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현황

자체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기증 자료의 건수는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증과 자체 수집을 위해 기관협력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과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보존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자료의 선정과 수집을 위한 위원회 등 전문가그룹을 운영(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온라인 분과,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그룹 구성 및 운영, 수집 실무 TF 팀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체 온라인 자료 소장 건수 18,589,753건에 비해 납본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4% 수준에 불과하다. 기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체의 8.57%, 자체 수집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체의 8.45%로 납본의 약 2배이다. 납본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법제화를 통해 출판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유형별 온라인 자료 누적을 살펴보면, 전자책의 경우 자체수집-납본-기증 순으로 나타났고, 전자저널은 기증-납본-자체수집, 음성·음향은 자체수집-기증-납본 순으로 나타났다.

4.1.5 시사점

위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후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새로운 유형 자료를 발굴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강의, 인터뷰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다양한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및 웹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납본 및 자체 수집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자료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개된 웹자료 및 회색문헌 등 수집 강화(eISSN 부여 학회지, 대학부설연구소 OA자료 등 보존 가치가 높은 학술지 원문 및 서지정보 수집), 그리고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유형에 대한 분류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변동성이 크고 휘발성있어 온라인 자료가 적시에 수집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웹사이트의 폐쇄 등으로 인한 디지털자료의 소멸로 수집·보존·전송되지 않는 자료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 자료의 빠른 생산 속도를 따라가고 소멸 전 적시에 수집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 지침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4.2 해외 주요 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서비스 전략

디지털 기술은 사회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 각국의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물리적 수집의 재평가와 병행하여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심화 탐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 및 캡처가 확대됨에 따라 재현성 문제로 인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

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고 도서관에서 처리하는 형식의 범위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온라인과 디지털자료 납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무적 혹은 자발적으로 납본을 계획하거나 웹사이트의 자동 수집을 실행하는 등 디지털 납본과 관련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4.2.1 납본의 필수 여부

LLC(The Law Library of Congress, 2024)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자료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납본은 필수이다.

디지털 납본은 네덜란드 출판사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에 처음으로 전자출판물을 납본한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에서 웹사이트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15년 동안 디지털 납본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나라별로 보면,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는 나라는 호주,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이고, 국가기록보관소 및 정부 기관에 납본하는 나라는 캐나다, 중국이며, 의회도서관에 납본하는 나라는 일본, 학술기관을 포함한 도서관 네트워크에 납본하는 나라는 영국으로 파악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4.2.2 납본 절차 및 방법

국립중앙도서관(2023)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출판물을 생산하는 출판사에게 납본의 책임을 부여하고 지정된 기관에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납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는 의무 납본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와 독일은 전자출판물을 발행 후 1주일 이내에 지정도서관에 납본한다. 뉴질랜드는 전자출판물을 발행 후 20일 이내에 지정도서관에 제공하고, 호주와 영국은 전자출판물을 발행 후 한 달 이내에 지정도서관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판사가 무료로 디지털 납본을 수행하지만 일본, 네덜란드, 한국은 규정에 따라 납본 비용을 상환받고 있다.

4.2.3 납본대상

디지털 납본의 대상은 웹사이트, 온라인 간행물(디지털 작품 포함), 인쇄 자료의 디지털 사본까지도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인쇄 버전을 디지털 사본으로 대체하여 납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리, 시각, 청각 자원을 디지털자료로 인정하고 납본을 지정하고 있으나 에스토니아와 프랑스는 영화 납본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웹사이트와 온라인 자료들은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은 비합리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포함된 라이브 스트리밍 및 웹 출판물의 경우 수집하지 않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4.2.4 해외 사례 기반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선 방향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수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나(국립중앙도서관, 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증장기 로드맵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민되어야 할 사항으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용도 제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 국가 정보 자원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국가 단위의 플랫폼 등을 도출했다.

특히 온라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 정보 관리 방안이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도서관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확대 방안,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 그리고 도서관과 기록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3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매체 환경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 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 등장하는 매체 플랫폼 서비스의 역동성은 이들 기반의 자료를 포괄하며 일반화된 수집범위와 정의를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는 현재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공공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Facebook,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 최신 XR 기술을 포함하는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등은 현재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신매체-플랫폼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

는 상업적 회사의 API를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회사의 액세스 제한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변경이나 폐쇄로 인해 데이터 수집의 시급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Twitter가 2023년 7월부터 사용량을 제한한 사례처럼,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접근성은 끊임없이 변한다.

따라서 공공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데이터셋이나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와 같은 원시 데이터의 수집과 보존도 향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유통의 OTT 플랫폼, 음악이나 웹툰의 포털 기반 플랫폼, 사용자 제작 동영상(UGC)의 유튜브 등 대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서브스택, 패트리온 등과 같은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등장, 개인 유튜브 채널과 웹소설가와 같은 독립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AR/VR, MR 등과 같은 다양한 신매체-플랫폼의 증가와 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현황 및 유형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전략의 필요성을 탐색하였다.

4.3.1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안으로 인한 개인과 기

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혀졌으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경우 정부기관의 계정을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남긴 데이터가 수집 콘텐츠에 포함될 수 있다.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다(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9234호).

「저작권법」 또한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를 수집·제공하기 전에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부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제31조 8항에 의하면 「도서관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저작권법, 법률 제19597).

보존 목적 이외에 수집·제공 및 이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관련된 법적 이슈를 평가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수집·제공 및 이용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저작물 인용이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 4 등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저작권법, 법률 제19597).

실감콘텐츠에서 저작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전시권과 파노라마 자유(freedom of panorama: 가상·증강현실 구현 과정에서 이용되는 배경 정보)이며, 실감콘텐츠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쟁점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 법리로 해결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은 상황으로, 가상현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9조에 의해 저작자는 저작물 원본과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지지만, 필름, 영상 등 다른 장치에 의한 간접전시는 전시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시에 포함될지 여부는 향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 의해 파노라마 자유 여부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제35조의 3에 의해 가상현실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법률 제19597).

4.3.2 고려해야 할 윤리적 이슈

소셜 미디어와 메타버스에서 생성되는 콘텐츠는 사용자 참여에 의존하며, 이러한 콘텐츠는 생성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와 직결된다.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 그 형태나 유형에 상관없이, 윤리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수집 및 제공 중인 기관의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의 활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동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용이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육과 안내는 사용자의 정보 보호

와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4.3.3 신매체-플랫폼 부분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도서관법』에 따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및 형태는 주로 웹사이트와 웹자료로 구분되고 있으나,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신매체가 웹사이트나 기존 웹자료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감콘텐츠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자료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별 수집 지침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자료의 경우,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집 지침이 필요하며, 웹자료 수집 지침에는 실감콘텐츠 같은 새로운 유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 기반한 자료는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제공하는 아카이빙 도구를 고려하여 수집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넉넉한 스토리지 확보, 전담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넷째,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수집을 위한 기관의 허가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e-deposit 시스템의 콘텐츠 확장성 및 사용의 용이성 제고, 실감콘텐츠 재현 공간의 첨단화 및 구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들은 신매체-플랫폼 기반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4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납본 연계 방안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수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납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표준식별체계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적용 동향과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증가, 국내표준식별체계 UCI의 활용, 그리고 ICN을 통한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관리 통합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조사했다.

4.4.1 국제표준식별체계의 온라인 자료 부여 동향

ISBN은 출판업체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디지털콘텐츠에도 적용 가능하다. ISSN의 경우 정기간행물 식별에 활용하여 기록보존과 관리에 효과적이며, 미디어 환경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온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는 창작자 식별과 저작권 관리에 중요한 역할

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디지털 객체 식별자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증가하는 온라인 출판물과 디지털콘텐츠의 식별에 사용되며, 인터넷 환경에서 지속적인 접근성을 제공하여 출판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는 음악 등의 녹음자료를 식별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며, 음악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음악작곡가와 연주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는 음악작품을 식별관리하며, 음악 저작권의 보호와 수익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음악 플랫폼에서 효과적으로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다. ISAN(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은 시청각 자료를 식별 관리하며, 영화 및 방송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및 작품의 저작권 관리, 수익분배 및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렇듯 국제표준식별체계는 각 분야에서 자료 식별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정보 및 창작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보 및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보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4.2 온라인 기반 콘텐츠 증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멀티미디어 자료의 출판이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MR) 등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ISBN 기반 온라인 자료의 납본대상 납본율은, 2022년 기준 16.4%이고, ISSN 기반 온라인 자

료 납본율 48.4% 정도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SSN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의 납본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출판시장의 확대에 인하여 전자출판물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웹툰 등의 정확한 출판량을 파악할 수 없다. ISSN의 부여 대상인 연속간행물의 경우, 일반 단행본 보다 전자저널 형태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ISSN 부여가 납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965년 시행한 종이책 위주의 납본에 대한 인식은 정착이 되었으나, 2016년부터 시행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ISBN, ISSN을 부여받은 자료는 납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를 거치지 않는 개별 단위의 자료가 납본 될 경우 납본 보상금에 대한 예산 확보 및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4.4.3 국가콘텐츠식별체계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활용한 온라인 자료 통합 · 관리

현재 ISBN 기반의 온라인 납본 대상은 웹툰, 전자책, 오디오북 자료가 해당이 되며, 음원 자료는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재형 웹툰의 경우,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ISBN을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식별체계가 필요하다.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는 국제표준식별체계는 대상별 메타데이터가 상이하지만, 공통부분도 있으며, 이를 통합 · 관리할 수 있는 식별체제로 UC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분야의 ISBN/ISSN, 음악분야의 ISRC, 학술콘텐츠의 DOI 등이 배타적 영역을 구축하여 국가표준식별체계인 UCI와의 연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형식의 메타데이터 사용에 따른 상호운용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UCI 코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에 따라, 구문 구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인 UCI는 콘텐츠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식별하는 역할을 하므로, 디지털콘텐츠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음악, 영상, 이미지, 문서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포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콘텐츠 관리와 저작권 보호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콘텐츠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4.4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을 통한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관리 통합 관리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은 저작권 정보 및 라이선스 정보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저작권 계약과 자료 이용 협의가 용이하다.

증가하는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므로, 저작권 관련 분쟁의 감소에 기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정보를 통합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저작권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협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5.1 본 연구에서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인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행태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근거를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그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자료, 온라인 등에 사전적 학문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료 (Online Material)는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웹사이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온라인 저널, 동영상 등을 포함하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온라인 자료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가능한 디지털자료의 하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자료(Digital Material)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통신 연속적인 아날로그 데이터와 대조되는 것으로, 숫자 또는 구간 형태의 데이터로서, 디지털자료는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화된 정보와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환경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형식이기 때문에 컴퓨터

나 스마트 기기에서 열람, 편집, 공유 등이 가능한 자료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자료는 온라인 환경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이다. 위 두 자료의 차이는,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의 한 형태이고 디지털자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디지털 형식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근거를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종류를 기반으로 한다.

「도서관법」 제3조제6호에서는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 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도서관법, 제19592호).

또한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1. 국내 웹사이트 및 대한민국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학술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디지털만화, 웹툰, 웹소설 등
 -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 3) 영상자료: 방송프로그램,¹⁾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실감콘텐츠, 방송광고 등
 -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서예 등
 3. 소셜 미디어(사회 관계망 서비스)
-

1)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으로 개정함
 방송법 제2조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의 표준기구 및 표준체계에 따라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

5.2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5.2.1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장서 수집 정책 개발시 고려 사항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의 장서 수집 정책 시 고려할 사항으로 먼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온라인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디지털 자원 확대, 온라인 서비스 향상, 디지털 저작권 관리, 학술적인 정보 제공,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 정보 접근성 강화,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

5.2.2 온라인 자료 장서 수집 정책의 사명과 목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공론화된 온라인 자료 장서 수집 정책의 사명, 비전, 목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설정 배경을 기반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먼저 사명 설정의 배경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적인 도서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와 온라인 자원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혁신적인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을 미래 지향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사명은 “혁신적인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으로 더 높은 차원의 지식 공유와 글로벌 지식 문화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지식 환경을 창조하는 미래 지식 생태계의 선두주자”로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비전 설정의 배경은 미래를 위한 지식의 보고로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며,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식과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식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 장서 수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혁신적 온라인 자료 개발로 세계 지식 문화 선도”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의 배경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현대적이고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는 첫째, 한국 온라인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둘째, 평등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지식의 민주화, 셋째, 혁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생 생태계로 제안하였다.

5.2.3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및 중장기 핵심 전략

한편, 온라인 자료 장서 수집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5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각 전략별 방향은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미래형 인프라, 공생의 협력, 재창조를 위한 보존이다.

세부적으로 핵심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지식문화유산의 포괄적 수집으로 온라인 자료 장서개발정책, 납본수집, 수증·수집 및 자체수집 확대, 신매체자료 수집 확대와 활용,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둘째, 선도적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는 온라인 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및 홍보강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미래형 인프라에서는 위원회 운영, 제도정비, 시스템 구축, 조직과 인력의 확대, 넷째, 공생의 협력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및 국내외적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창조를 위한 보존으로 장기보존정책과 보존환경 및 관리를 추진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5.2.4 단계별 발전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본 연구에서는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및 국가 지식자원의 영구 보존과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한 대국민 디지털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성공을 위해서 세부 추진 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에 따른 자료 수집 과제별 시기 선정 이행 로드맵 수립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도, 시

급성 등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운영 시기를 반영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실천 로드맵은 앞서 제시된 전략을 기반으로 1단계(기본조성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5년간(2024~2028)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1단계 기반조성단계에서는 온라인 자료 수집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기본적인 운영 기준 및 정책 수립 및 협의체 등 선행되는 단계로 온라인 자료 수집 정책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2단계 확산단계는 기반조성단계를 통해 안정화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 및 확장하는 단계이다.

3단계 성숙단계는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6. 결론 및 제언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제안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의 현황, 관련 법·제도, 온라인 자료의 유형 및 수집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수집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 자료조사 방법을 통해 국내외 온라인 자료 관련 도서, 보고서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반 조건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국내외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및 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현황조사 방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해외 주요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했다. 셋째, 관계자 면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조사자료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전문가로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등 5~6인 포함하였으나 지면의 한계상 본 연구에는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중장기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중요성과 수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온라인 자료의 소멸성, 휘발성을 고려할 때, 시의성 있는 수집과 체계적인 보존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자료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이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납본 체계는 다양한 신매체와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법률 개정, 납본 시스템의 고도화, 다양한 신매체 수집 방안의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활용 전략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자료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장기 로드맵 및 핵심전략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자료 수집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반 조성부터 시작하여 확산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숙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련 기관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자출판물 수집 정책 및 운영지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가 지식자원의 후대 전승을 책임지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온라인 자료를 수집 및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와 이를 위한 실무적 지침을 수립하였다. 둘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외 주요 온라인 자료 수집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모형 및 세부 지침을 제안하는데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담당자의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실무자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온라인 자료 수집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 원칙과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실무 수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인사이동 및 유고에 따른 실무 수행의 지연이나 난맥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국가의 대표도서관이라는 국립중앙도서관 특성상 국립중

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의 성문화는 지역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온라인 자료 개발정책 수립 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더 나아가 실시간 데이터 추적 및 수집 기술 연구, 온라인 자료 보존 기술의 발전 연구,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층연구, 국제 협력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신기술과의 융합 연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9234호.
- 곽승진, 김정택, 박옥남, 최재황 (201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61-168. <http://doi.org/10.4275/KSLIS.2013.47.3.161>
- 국립중앙도서관 (2012a). 국가문헌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 발간현황 분석과 납본수집 개선방안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2012b).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개발정책.
- 국립중앙도서관 (201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원 보존전략 수립 연구, 「2018 연구보고서」.
- 국립중앙도서관 (2019).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2022). 온라인자료 수집보상체계 수립방안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온라인 자료 납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서관법. 제19592호.
- 이치주 (2017). 온라인 연속간행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장보성, 남영준 (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http://doi.org/10.4275/KSLIS.2010.44.4.435>

저작권법. 법률 제19597.

최재황, 박승진, 김정택 (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09-232. <http://doi.org/10.16981/kliss.40.1.200903.209>

The Law Library of Congress (2024.04.15.).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Available: <https://www.loc.gov/research-centers/law-library-of-congress/about-this-research-cente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Jae-Hwang, Kwak, Seung-Jin, & Kim, Jeong-Taek (2009). A study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209-232. <http://doi.org/10.16981/kliss.40.1.200903.209>

Copyright Act. Act No. 19597.

Jang, Bo-Seong & Nam, Young-Joon (2010). Research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online electronic b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435-456. <http://doi.org/10.4275/KSLIS.2010.44.4.435>

Kwak, Seung-Jin, Kim, Jeong-Taek, Park, Ok-Nam, & Choi, Jae-Hwang (2013). A study on legal deposit guidelines for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161-168. <http://doi.org/10.4275/KSLIS.2013.47.3.161>

Lee, Chi-Ju (2017). (An)Investigation on the Acquisition and Preservation of Online Serial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Libraries Act. Act No. 19592.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a). A Study on the Publication Status of Publications and Improvement of Lead Collections for National Literature Collections.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b). National Library of Korea's Online Materials Development Department.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Resource Conservation Strategy for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Research Report」.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 A Study on feasibility of Collecting oral data a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2).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Online Data Collection

Compensation System.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 A Study on the Mid-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Online Data Collect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Notification. No. 2022-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No. 19234.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21). A Study on the Publication Status of Publications and Improvement of Lead Collections for National Literature Collections.